

2021년 7월 1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28편 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65장(통487) 죄짐 맡은 우리 구주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9장 1~14절(구약p.1248)

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 2..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9.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 말씀선포 / 기도의 사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뤄지는 데 불씨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들도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8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또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고 하였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대하여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고 하시며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기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 했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고 했으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3절에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민족의 포로 신분이었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 본문 1~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처한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기 원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붙들며,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라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렇듯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 두고 기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오늘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해야합니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어쩌면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자신이 믿는 우상을 향해 열렬히 기도했던 이방 제사장들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8장 9절에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그릇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는 경건의 삶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2, 회개의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 예수님은 산상수훈 첫 시작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2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자기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의 범죄만을 참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우리가 속한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회와 이웃의 범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웃들을 정죄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나 이웃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그 결과를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아픔에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태도 역시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마음 아파하고 그들 대신 회개하며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서로의 짐을 져 준다면 나라와 민족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적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 기도의 열망은 뜨거워질 것이고, 하나님도 말씀에 합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65장(통484)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 폐 회 / 주기도문